

씨 뿌리는 자의 비유

¹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²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³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⁴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⁵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⁶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썩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⁷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⁸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⁹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¹⁰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¹¹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¹²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¹³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¹⁴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¹⁵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눅8:1-15)

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제거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악이 드러나도록 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과 생각, 그

눅8:1-15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리고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examine*)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법과 오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시 자기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주목해야(*see*)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자신의 영에 악을 허용, 일상화된 악에(*for these he still does*) 더 이상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되는 건 아닌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DP.278)

복음서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거나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군중들과 함께 계시지만, 밤이 되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밤은 인간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에게 밤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인간적 자아가 주님을 시험하는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밤에 기도하시는 것은 당신 안의 여호와를 의지해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지옥과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주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에게로 가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도울까

요? 각자 거듭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돕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동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모습을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¹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주님께서 성들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성과 마을을 구별하는 이유는 내적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城, city)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을(village)은 예배 의식 같은 교회의 외적인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교리를 마음에 굳힌 사람들이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아직 교리에 대한 확신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자기 종교의 교리를 마음에 굳히지 않은 후자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 또는 새로운 진리의 출현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열두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모든 사람입니다. ‘열둘’(12)은 모든 형태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색깔이 다 다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깊이와 색깔은 다르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진리는 인간의 언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신실한 말과 행동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것이 주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

하시는 모습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설교자의 언변과 학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인애의 삶을 분리한 교회에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열두 제자와는 별도로 주님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²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³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의 제자들 말고도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때 병자였거나 귀신이 들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치유 받은 사람들입니다. 질병이나 귀신 들림은 영적으로는 악과 거짓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를 말

눅8:1-15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합니다. 그러므로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의해 내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그들을 여자 또는 아내라고 표현하는데, 여자와 아내는 모두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에서 그가 유대교회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 즉 유대교회의 교리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속뜻으로 외적인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성안에 사는 사람과 마을에 사는 사람의 의미를 구별해 설명했는데, 이를테면 청지기는 마을에 사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는 유대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등 외적인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리에 대한 내적 확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청지기가 그런 의미라면 청지기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청지기의 아내라고 해서 청지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

석이고요, 아내와 남편을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즉 유대교회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병고침을 받고 내면이 거듭난 사람이 바로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 말은 각자의 애정에 따라 주님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의 내면의 애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Divine Love and Wisdom) 209번 글에는 ‘물질은 곧 형상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형상이란 무엇의 형상일까요? 각자의 사랑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자기 소유의 물질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은, 마음속에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내면의 사랑의 형상대로 주님과 이웃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⁴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자 4절에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각 동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표현은 ‘city’입니다. ‘city’는 종교의 교리를 의미하니까, 이 말씀은 모든 종교의 교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진리는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진리에 감화된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모든 동네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의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십니다. 5절은 그 첫 번째 유형입니다.

⁵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

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씨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를 뜻합니다. 또한 길은 본래 진리를 뜻하는데, 여기서 반대로 거짓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씨가 길에 떨어졌다는 것은, 물질과 감각의 기쁨을 좇는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 기쁨, 감각의 기쁨을 좇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새로운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곧 그것을 악용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 진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진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씨앗이 밟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밟에 밟힌다’는 것은 진리를 악용하는 순간 진리가 파괴된다는 뜻이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는 것’은 거짓으로 인해서 진리가 변질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새는 진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거짓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6절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눅8:1-15

‘씨 뿌리는 자의 비유’

⁶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때 씨
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
랐고

말씀에서 바위는 믿음을 뜻합니
다. 예를 들면, 베드로라는 말도
어원적으로 보면 바위를 뜻합니
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위는 그
바탕에 이웃 사랑의 삶, 체어리티
의 삶이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곧이어서 습기가 없
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없
다’는 것은 그의 믿음 가운데 체
어리티(*charity*, 인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
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
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
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3절)

다음은 진리를 찾는 세 번째 유
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⁷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
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합니
다. ‘가시떨기’는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한 거짓을 뜻합니다.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 같은 불결한 욕망
을 좇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
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걸
으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같
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
우기 위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
러므로 진리를 가로막는 가시떨
기는 그러한 욕망에서 비롯한 거
짓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
씀하실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아닌가?’라
며 즉시 잊어버립니다. 그런 식으
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에, 그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으며, 그
러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은 그런 자를 가리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
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
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
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진리를 찾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에서 땅은 교회나 교회를 형성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삶이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았으면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백배로 결실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백배'란 완전한 것, 충만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귀'는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교회의 성직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 다. 오히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유대인이라고 멀리하거나 이방인이라고 더 가까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새로운 진리를 전하셨고, 새 교회의 출현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주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와 주님에 의해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주님 당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

눅8:1-15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주님을 도울 때 새 진리는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 무리 지어 올 것입니다. 새 교회 교세가 미약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에 따라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는 저절로 커질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진리이며, 완전한 진리입니다. 앞으로 이 진리가 종교의 벽을 모두 허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서울 새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21:2)

아멘

원본

2018-10-07(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2-17(D6)

2023-05-01(D2)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